

#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2015년 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꿈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험난한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뜻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화재 이외에 폭발·붕괴 등의 위험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협회가 지향해온 종합방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대대적인 고객서비스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전경련에서 경제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2015년 경제 상황의 키워드로 '구조적 장기침체'를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장기침체로 빠져드는 이유로는, 유럽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경기 침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적인 수요 부족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구조적 침체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협회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방재서비스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작년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붕괴위험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붕괴분야 안전점검 기술을 조기에 향상시





킬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화재보험법령의 발전적인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 업계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법령 개정 이후 관련 보험상품의 보완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고객중심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진심을 담은 친절할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고객이 느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추진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2015년 양띠 해에 어울리는 말로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경제여건이 어렵더라도,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는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늘 독자 여러분의 요구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세계일류 방재전문기관'이라는 협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1.

이사장

이 기 영

